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전 홍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 탐색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소 엽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 탐색

전 홍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소 엽

# 인 준 서

이소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를 유아의 자연스러운 공간이자 생활 경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유아가 통학버스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의 공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6년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D광역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만 3세~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통학버스에서의 상호작용을 총 72회 참여관찰 하였다. 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형식적 면담과 비형식적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사 31회, 유아 96회 실시하였다. 문서자료로 통학버스 차량표, 등·하원 일지, 유아발달 체크리스트와 유아 개인기록서류, 유아 관찰 기록을 참조하였다. 참여관찰과 면담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헤어짐과 만남을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등원버스에 오르며 가족과 헤어짐을 경험했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 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아는 버스에서 같은 장소에서 승·하차하는 친구나 다른 반 또래들과 만났다. 유아들은 버스에서 친구

가 앉을 자리를 맡아주거나 같이 앉을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하원버스에서 가족들을 만날 설렘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하원 이후에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약속하는 공간으로 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원버스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만남에 대한 계획과 약속은 하차 후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또래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였다. 통학버스에서 혼합연령의 유아들은 서로 정보나 지식 또는 정서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래 연령의 유아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단어를 윗 연령 유아에게 질문하여 답을 들었고 윗 연령유아는 아래 연령 유아에게 바른 답을 안내해 주었다. 유아들은 통학버스 가장 뒷자리나 교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를 택하여 앉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간식을 주고받는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유아에게 있어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이었다.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교실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교실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는 유아도 버스에서는 교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교실에서는 장난꾸러기이지만 버스에서는 아래 연령의 동생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유아는 교실에서 진행했던 활동을 통학버스에서 재현하고 확장하고 반복하며 새로운 활동으로 변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유아의 관점에서 관계의 재정립, 전이, 표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을 통해 재해석된 이러한 의미는 통학버스가 유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가치있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통학버스를 유아교육기관의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버스에서의 유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버스가 의미있는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연구자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유아의 공간 이해 .....	7
2. 어린이 통학버스 .....	9
3. 사회적 상호작용 .....	11
1)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 .....	11
2) 유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 .....	13
III. 연구 방법 .....	16
1. 연구 참여자 .....	16
1) 연구현장 .....	16
2) 교사 .....	18
3) 유아 .....	19
2. 연구 절차 .....	22
3. 자료 분석 .....	26
4. 타당도 .....	27

IV. 연구결과 .....	29
1. 헤어짐과 만남의 공간 .....	29
1) 가족과의 헤어짐과 만남 .....	29
2) 또래와의 만남과 헤어짐 .....	35
2.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는 공간 .....	40
1) 배움과 가르침의 공간 .....	40
2) 비밀스러운 거래의 공간 .....	44
3. 자연스러운 표현의 공간 .....	48
1)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 .....	48
2) 수업 재현과 변형의 공간 .....	51
V. 논의 및 결론 .....	57
1. 논의 .....	57
2. 결론 및 제언 .....	6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통학버스 기사와 운행시간 .....	17
<표 2>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 .....	19
<표 3> 통학버스 이용 유아 .....	21
<표 4> 수집된 자료 .....	26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삶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엄마의 뱃속이라는 최초의 공간을 경험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가정이나 사회 등으로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인간은 다양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정지된 상태로 인간의 삶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공간의 주체가 되는 인간으로부터 공간의 의미는 새로운 의미로 탄생하게 된다(성인수, 1997). 즉,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아도 공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유아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 시간의 흐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의 경험으로 공간을 만든다(임부연, 양혜연, 송진영, 2012). 유아에게 집을 제외한 첫 사회적 공간은 유아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실, 놀이터, 화장실, 복도, 계단, 통학버스 등이 모두 유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실제적인 주체자로서 공간마다 자신의 생각, 경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한다(고명주, 2014).

유아가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은 유아에게 진정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이순금, 2004). 결국 공간은 유아 주도적으로 구성되며 유아는 창조된 공간 안에 둘러싸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의 공간 관련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교사는 유아교육기관의 공간들 중 교실을 핵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구수진, 2014). 그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공간, 소외된 공간에서도 유아의 사회적 경험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유아는 공간을 창출하고 또래와 공간을 점유하면서 공간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명주, 2013). 따라서 성인 또는 교사나 유아가 머무는 공간에서의 유아의 경험이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유아의 세계를 이해하고 유아의 공간을 교육적 공간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효원, 조희숙, 2016).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현장에서 공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크게 교실이나 실외놀이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아교육기관 교실 관련 연구(곽향림, 2009; 김지량, 1987; 김호현 2016; 김희태, 2015; 안수연 2000), 실외놀이터 관련 연구(송은영, 2008; 오현경, 2012; 정은경, 1999; 최미숙, 2012)이다. 교실과 실외놀이터 외에도 유아교육기관 화장실의 의미에 관한 연구(양시내, 2007), 유치원 비밀공간에 관한 연구(김혜영, 2008), 유아 경계공간(고명주, 2014)에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접하는 공간은 교실과 실외 공간 외에도 계단, 복도, 화장실, 통학버스 등이 있고 유아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유아의 경험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며 유아들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에 공간을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다(양재희, 2013).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도 특수한 공간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유아가 머무는 공간이자 유아의 경험에 의해 재창조되는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집과 어린이집을 오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만 그 안에서 유아들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통학버스는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가정과 어린이집을 연결해주는 매개적 공간이기도 하다. 통학버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교통사고 실태 및 문제점 관련 연구(고준호, 2014; 구은미, 2008; 이성재, 2015; 윤선화, 2013; 이율이, 이완정, 2004)와 통학버스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서옥경, 2012; 성영화, 최효정, 2015; 조혜진, 구은미, 2010)가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통학버스를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안전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 통학버스는 또래를 만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관계형성, 전이활동, 정서 표현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주변 공간,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주변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박진영, 2002). 유아의 경험은 객관화 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인과는 달리 경험을 통해 유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유아는 단순한 체험으로 사실적 조건 뿐 아니라 대상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유아의 경험은 사실이기 보다는 의미 부여에 더 가깝다(고진호, 1993). 즉, 유아의 경험을 통한 의미부여는 고정된 것이 아닌 유아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Dewey는 경험은 개개인이 그들의 삶에서 주변 세계를 접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주변 환경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교육적, 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양은주, 2000). 김천수(1994)는 경험의 연속은 또 다른 경험의 시작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에서 질적으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아의 경험이 의미 있고 가치로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며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교사나 부모가 유아의 경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험은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경험, 생각

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며 시작된다(김희태, 2015).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거쳐 이루어진다. 유아들도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친밀성을 유지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한다(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기 상호작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데(조순옥 외, 2002) 이러한 소통은 상호교환의 과정이고 성숙의 시작이다. 유아들은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시작하게 된다(문영경, 최선녀, 2015). 유아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의 실재를 접할 수 있게 하며 유아 스스로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애숙, 2003). 뿐만 아니라 취학 전 유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학교 적응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한다(정대현, 지성애, 2006). 따라서 모든 학습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의 긍정적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합연령간의 상호작용은 폭넓은 지식과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는다(황순주, 2009).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공간 안에서의 유아는 혼합연령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홍수연, 1995).

유아교육기관의 통학버스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생활공간이다. 통학버스는 유아들의 사회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유아는 공간을 통해 주체를 확인하고 공간을 변형을 경험하며 기억의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의 생활공간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으로 바라보아야한다(임부연, 양혜련, 송진영,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인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를 유아의 자연스러운 공간이자 생활경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유아가 통학버스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학버스에 유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 경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의 공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 3. 연구자

연구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총 3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등·하원 버스에 유아와 동승하던 시간이었다. 통학버스를 타기 전 버스를 이용하는 유아가 모두 탔는지 확인하고 버스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아가 버스 좌석에 바르게 앉아있는지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초임교사로 등·하원 버스를 지도 할 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등원시간 보다 하원시간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하원시간은 4-5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 내리는 장소, 통학버스에서 내려 엄마와 만나는 시간이다. 멀리서 버스로 다가오는 학부모를 보지 못하고 아이를 먼저 내려주

었던 순간,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유아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찔했던 순간 이후 차례대로 부모를 확인하고 유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통학버스 지도에 익숙해질 무렵 버스 안 유아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유아들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유아들은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내어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스티커를 서로 주고받으며 거래를 하기도 했다. 버스에서 유아들은 다른 반 친구를 만나거나 형, 동생과 마주하기도 했는데 혼합연령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서열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아들은 또래 다음으로 교사에게 관심을 보였다. "선생님 이거 오늘 미술영역에서 만들었어요.", "선생님 늘빛나라 선생님 맞아요?" 유아들은 교사에게 자신의 경험, 생각, 관심사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통학버스는 타고 내리는 순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통학버스는 유아들이 기관생활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으며 교사와 유아 모두 다른 반 유아를 만나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더불어 혼합연령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연구할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유아들이 통학버스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유아들의 세계를 가까이 재조명하고 유아들이 가지는 통학 버스의 공간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유아의 공간 이해

우리의 삶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간은 장소와 사물의 배치에 따라 한정되어 있지만 물체의 위치 변화에 따라 사람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인간은 공간에서의 경험을 장소로 연관 시켜 경험을 기억한다(고명주, 2014). 이러한 경험은 주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임승빈, 1986). 즉 인간이 머무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순, 2008). 장소는 정지된 상태이고 인간이 공간에 부여하는 가치는 삶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장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김영순, 2011). Hall(2001)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 공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한 학자로 공간을 인간과 연결 지어 친밀 공간, 개인 공간, 사회 공간, 공적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친밀 공간은 인간과 매우 가까운 관계인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만 허용되는 공간이고 개인 공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다. 사회 공간은 두 명이상의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공적 공간은 세미나, 강의 등과 같은 형식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Hall의 공간 분류는 공간마다 의미가 있고 공간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나 정서,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양시내, 2007).

성인과 마찬가지로 유아도 공간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고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며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양재희, 2013). 유아가 경험하는 공간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고 개인적 경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른들의 생각과 매우 다른 공간이다(이순금, 2004). 유아가 경험하는 공간을 정서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가 경험하는 공간에는 정서적 공간이 있다. 유아는 아늑하고 안정적인 공간에 있을 때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의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된다(유혜령, 2005). 태아는 엄마 뱃속을 최초의 공간으로 지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원초적 공간이라 하고 태아가 산로를 통해 나오기 전까지의 자궁 안을 절대적 세계로 인식한다(양시내, 2007). 자궁 속 편안함과 안정감의 공간을 처음으로 마주한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영아가 양육자와 함께 머무는 집과 같은 장소를 공간으로 이해하듯 유아는 유아의 사회적 공간인 유아교육기관을 또 하나의 공간으로 지각하기 시작한다.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만의 비밀장소가 있으며 유아는 그 공간을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김혜영, 2008). 유아가 정서적 공간은 찾는 이유는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홍계숙, 유혜령, 2001). 유아에게 있어 정서적 공간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정적인 휴식 공간, 조용한 공간, 아늑하고 부드러운 공간이다.

둘째,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유아에게 있어 사회적 공간은 타인과 지식, 정보, 정서를 주고받으며 배움이 발현되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양재희, 2013). 공간은 단지 고정적, 수동적인 것이 아닌 유아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호 주관적 세계이다.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의미 있는 공간이며 유아의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고명주, 2014).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의 교실은 하나의 큰 공간으로 유아에게 있어 사회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임부연, 양혜연, 송진영, 2012). 교실 외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다른 공간도 유아의 경험과 연결된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고명주, 2003). 유아의 경험이 연결되는 것은 공간의 주체인 유아가 경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간, 사회적 공간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유아는 공간을 정서적, 사회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공간으로 이용한다. 유아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 안에서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공간의 의미를 부여 한다. 공간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성되어지며 유아는 그 공간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한다. 유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유아와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가 경험하는 공간과 공간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때 비로소 유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2.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 21호)에 의해 13세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 48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를 어린이 보호차량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지칭한다. 보통 어린이 통학버스는 처음부터 통학버스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것이 아닌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이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적이다(고준희, 201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2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과 지정절차, 차량구조 등을 지정한다. 9인승 이상의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특별보호를 받고자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좌석, 안전벨트, 승강구 발판 높이, 어린이보호표지, 차량색상, 표시등 설치, 차량용소화기 구비, 구급상자, 차량안전수칙 부착, 영아용 보호 장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란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 시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 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해야 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 좌석에 앉는 것과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교사 등 동승자는 유아를 안전하게 담당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 하여야 하며, 모든 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유아교육기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사가 함께 동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과 관련된 항목들이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통학버스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교통사고 실태 및 문제점 관련 연구와 통학버스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어린이 사망원인 1순위가 교통사고로 유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연구(고준호, 2014), 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하원시간대에 통학버스의 유아안전과 차량안전에 관한 연구(윤선화, 2013),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안전벨트나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안전시트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이윤희, 이완정, 2004)는 안전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은 통학버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감

소 시켜기 위한 대안 책을 마련한 연구(구은미, 2008; 이성재, 2015), 통학버스 운전기사과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장하는 연구(심윤영, 2004)들은 공통적으로 통학버스의 교통사고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편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들은 운전기사과 부모와의 소통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성영화, 최효정, 2015), 통학버스 운행 시 교실에 남아있는 유아들은 다른 교사가 돌보게 되므로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옥경, 2012).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장점은 유아들이 일률적으로 등원할 수 있고 원아모집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함과 통학버스 동승에 대한 스트레스, 수업준비 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조혜진, 구은미, 2010). 이러한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차량동승 시간분배, 통학버스 동승 전담 도우미 배치, 원장과 교사, 부모, 차량기사간의 원만한 관계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성영화 외, 20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의 연구들이 통학버스를 이동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 3. 사회적 상호작용

#### 1)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구성원으로서의 공

통된 언어, 사고, 역사,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상호작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언어, 신체,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행동을 말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요소라 말할 수 있다(강정희, 2008). 교육심리학 용어사전(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사회 속에서 인간 사이의 상호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양방향의 소통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양방향의 접촉을 의미하고(한애숙, 2003), 한 사람에 의한 접촉의 시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반응을 통해 둘 혹은 두 이상의 사람과의 접촉 시도와 반응의 행동패턴이다(허혜선, 2002). 결국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사람이 이상이 만나 언어, 행동, 감정을 직접 교환하는 과정이고(이애경, 2002) 신체, 언어,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것이다(김신옥, 1995).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은 한 사람이 사회적 접촉을 시작하고 이에 타인이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의 연속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의미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다(한애숙, 2003).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경우 타인과 협동하기, 공감하기, 이해하기, 도와주기로 나타나고 부정적일 경우 공격하기, 놀리기, 화내기, 무시하기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며 언어적 상호교환의 과정을 이룬다(서미옥, 2006).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통해 타인을 수용하고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전준, 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작용은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사람은 둘 이상의 사람이 양방향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상호 작용하는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2) 유아기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고 유아는 가족과 그 이외의 타인들과의 함께하며 삶 관습과 체제, 언어 등을 익히며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유아는 가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대상과 상호작용한다(최혜영, 2004). 또한 유아는 타인과 함께 어울리며 생각, 경험, 정보, 지식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시도한다. 유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류송미, 2001). 이러한 유아의 자유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능력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유아는 상호작용을 통해 올바른 행동과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차영숙, 2001). 유아는 또래, 가족, 그 외의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응방법을 배운다(정계숙, 황영미, 2000).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는 또래를 상대로 사회적 경험을 시작한다. 유아는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이란 구체적인 경험 또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이영옥, 2008).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때로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또래를 만나게 되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해결하고자한다. 유아-유아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 의존적 행동도 수반하며 부정적, 의존적 행동도 유아의 발

달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이은정, 2008).

유아는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흥미로운 행동을 보이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행동을 주고받는다(성은현, 조경자, 1999). 유아는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유아들은 4-6세가 되면 상호작용을 위한 수많은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게 된다(박은주, 2008).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또래이다(이기숙, 2000).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을 시작으로 타인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러한 만남은 유아를 새로운 세계로 확장시킨다. 유아는 또래와 놀이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한수정, 2010).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호혜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될 때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상대방과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고 긍정적, 부정적인 정서 모두를 공유할 때도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적 동시성이 나타난다(김언경, 2015). 부정적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유아 간 갈등은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서로에게 모델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유아는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사회적, 인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김 숙, 1995).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지현빈, 2010). 여아들의 경우 또래에 대한 권유적 표현과 더불어 상대방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남아의 경우는 또래에 대한 명령적 언어로 상호작용한다(김윤희, 2010). 즉, 여아는 수용적, 언어적 표현을 하고 남아보다 수용적, 언어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반해 남아는 사회적 표현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홍지영, 2009). 연령별 상호작용 중 혼합연령의 상호작용은 단일연령의 상호작용보다 긍정적인 사회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하승민, 1996).

둘째, 성인은 유아에게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아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돕는다. 유아는 가정에서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과 상호작용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언어를 주고받는다. 유아와 성인과의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기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이지희, 김혜연, 2012), 성인은 유아의 행동에 맞춰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유아와 상호성을 이루기 때문에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다(하은빈, 2012).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는 또래 뿐 아니라 교사와도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상호교류를 이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김영신, 2007). 유아와 교사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관계형성은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돕고 부적응 유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최선희, 황혜정, 2011).

종합하면 유아는 또래 및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부정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제해결력을 길러준다. 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성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부적응을 완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를 유아 생활 경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유아의 경험을 통해 통학버스의 공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등·하원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참여관찰하고 유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A어린이집의 등·하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만 3세~만 5세 유아와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이다.

#### 1) 연구현장

##### (1) A어린이집

본 연구가 이루어진 어린이집은 D광역시의 지하철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A어린이집은 지상 4층의 건물로 4층 주방을 제외하고 모두 보육실로 사용하고 있다. 학급 수는 만 1세 , 만 2세 두 학급, 만 3세 반, 만 4세 반, 만 4·5세 혼합연령반으로 총 6개 반이다. A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총 13명으로 원장, 교사 6명, 누리보조교사 2명, 시간연장 교사 1명, 조리사 1명, 안전기사 2명이다.

A어린이집의 1층에는 만 1세 사랑반, 만 2세 하얀반 교실과 원장실, 화장

---

1) 본 논문에 제시된 어린이집, 학급, 차량기사, 교사, 유아를 포함한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실, 세탁실이 있고 2층에는 만 2세 파란반, 만 3세 가운반 교실과 화장실, 교사실이 있으며, 3층에는 만 4세 도담반, 만 4,5세 혼합연령인 어진반 교실과 화장실이 있다. A어린이집의 3-4층 사이 계단에는 교재·교구가 놓여 있고 4층은 옥상(하늘공원)과 주방, 화장실이 있다. A어린이집은 현관문 옆에 작은 장미로 장식 되어진 단조대문이 설치되어있어 실외놀이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바로 맞은편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

A어린이집은 시간연장형으로 평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평일 귀가는 4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와 함께 개별적으로 귀가하고 있다.

## (2)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출근시간과 겹쳐 교통이 혼잡한 등원 시간에는 두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비교적 교통 혼잡이 덜한 하원시간에는 한 대의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다.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기사와 운행시간은 표 1과 같다.

<표 1> 통학버스 기사와 운행시간

통학버스	운전 기사	성별	버스운행 총 경력	A어린이집 버스운행경력	등·하원버스운행	
					등원	하원
코끼리차	박지만	남	20년	5년	3회 순환 (8:10~9:40)	3회 순환 (4:00~5:30)
호랑이차	조규환	남	14년	9개월	1회 순환 (8:30~4:00)	.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는 15인승 이스타나 차종이며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박지만 기사와 조규환 기사이다. 박지만 기사는 버스운행 경력이 20년으로 A

어린이집에서 5년째 근무 중이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이전에는 입시학원, 미술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했다. 조규환 기사는 버스운행경력이 14년으로 A어린이집에서 9개월째 근무 중이고 등원차량 운행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기준(한국보육진흥원, 2015)에 따라 통학버스 내부에는 차량안전 수칙이 차량 내부 벽면에 부착되어 있고 영아용 보호장구, 소화기, 구급상자, 차량일지 등을 갖추고 있다.

박지만 기사가 운행하는 등원버스는 8시15분에 출발하여 9시40분에 마무리하고 30~40분가량 총 3회로 나누어 운행한다. 조규환 기사가 운행하는 등원버스는 8시 30분에 운행을 시작으로 9시에 차량운행을 마친다. 하원시간의 경우 박지만 기사의 버스로만 4시부터 5시30분까지 총 3회로 나누어 운행한다. 통학버스가 세 번으로 나누어 운행할 때 한 번에 10~11명의 유아가 탑승하고 각 승·하차 장소에는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의 원아가 타고 내린다. 등·하원 통학버스 이용 시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배웅하거나 맞이해주고 조부모 또는 아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A어린이집을 선정한 이유는 15인승 차량을 운행하여 모든 버스 이용 유아를 관찰하기에 적합하고 연구자가 근무했던 원으로 연구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선정하였다.

## 2) 교사

A어린이집에서는 각 반 담임인 6명의 교사가 당직 순번대로 돌아가며 등·하원 통학버스에 동승하고 있다. 교사들이 하루에 등·하원 모두 버스를 타는 일이 없도록 차례가 정해져 있으며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은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하원지도를 하고 있다. 사랑반 신교사의 경우 만 1세 영아들의 귀가시간이 대부분 5시 이후에 몰려있어서 조규환 기사의 오전 통학버스만 탑승하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1회 순환일 경

우 30분에서 3회 순환일 경우 90분 정도 버스에 탑승한다.

교사들은 개학 전 차량 노선을 함께 돌아보고 이용하는 원아를 확인하였으며 차량일지를 통해 통학버스로 등·하원하는 원아를 기록하고 있었다. 차량일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 작성한 것으로 유아의 통학버스 탑승여부, 탑승시간, 하차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의 역할은 등·하원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가 어린이집과 가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등·하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교사

	반 이름	담당연령	이름	성별	교육경력	등·하원 버스	
						등원	하원
1	사랑반	만 1세	신정은	여	2년	월~금	.
2	하얀반	만 2세	안미래	여	3년	수	목
3	파란반	만 2세	박주미	여	1년	금	월
4	가온반	만 3세	이하진	여	1년	월	화
5	도담반	만 4세	김지은	여	3년	목	금
6	어진반	만 4,5세	정윤하	여	10년	화	수

### 3) 유아

A 어린이집에서는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원아가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원아의 수는 영아를 포함하여 전체 64명 중 등원시 41명, 하원시 30명으로 어린이집 전체 원아의 반 이상이 통학버스

를 이용하였다. 등원버스 이용원아 수에 비해 하원버스 이용원아 수가 적은 이유는 하원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데리러오거나 태권도, 미술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기관에 인계되어 귀가하는 유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수는 만 3세는 7명, 만 4세는 13명, 만 5세는 8명으로 총 28명이다. 연구 참여자인 만 3세에서 만 5세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통학버스 이용 유아

번호	연령	반	성별	이름	등·하원 버스이용여부		
					등원		하원
					호차	코스	운행코스
1	만 3세	가 온	여	김주아	1호	1코스	1코스
2			남	원재율		2코스	3코스
3			여	정혜인		2코스	3코스
4			남	김민준	2호	2코스	3코스
5			여	이가현		3코스	1코스
6			남	김혁준		1코스	2코스
7	만 4세	도 담	여	박은규	1호	1코스	1코스
8			남	최하용		1코스	1코스
9			남	류지용		2코스	3코스
10			여	박승아	2호	2코스	3코스
11			남	임재욱		2코스	3코스
12			남	김민건		3코스	2코스
13			여	김윤서	2호	3코스	2코스
14			남	김도연		1코스	2코스
15	남	김지훈	1코스	2코스			
16	여	김지연	1코스	2코스			
17	만 5세	어 진	남	김해솔	1호	1코스	아동센터
18	만 5세		여	이하운		1코스	태권도
19	만 4세		여	김지현		1코스	1코스
20	만 4세		남	최지훈	2호	1코스	1코스
21	만 5세		여	손예리		2코스	태권도
22	만 4세		남	조은정		2코스	태권도
23	만 5세		여	김용준	2호	2코스	태권도
24	만 4세		여	이규림		3코스	1코스
25	만 5세	남	권범준	1코스		태권도	
26	만 5세	남	박은결	2호	1코스	태권도	
27	만 5세	여	김예슬		1코스	2코스	
28	만 5세	남	김희성		1코스	2코스	

등·하원 통학버스는 3회 순환으로 운행되며 1회씩 운행마다 순서대로 1,2,3코스로 칭한다. 하원버스 운행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태권도 학원으로 가는 유아들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A어린이집의 통학버스는 등원과 하원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등원버스는 2대

로, 하원버스는 1대로 운행하고 있다. 등원버스 중 박지만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코끼리차로 총 3회 순환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조규환 기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호랑이차로 등원시간에 1회만 운행한다.

## 2. 연구절차

###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P유치원 통학버스에서 2016년 2월 5일 부터 2월 23일 까지 등·하원 각 3회씩 총 6회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은 연구의 취지를 원장과 교사, 버스기사에게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아 실시하였다. P유치원의 통학버스는 25인승과 15인승으로 동시간대에 출발하지만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총 6차례의 예비관찰 중 각 3회씩 15인승과 25인승 통학버스에서 관찰을 실시하였다. 25인승 통학버스는 많은 유아가 탑승하여 혼합연령간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15인승 통학버스는 자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마주보고 앉을 수 있으며 연구자가 버스 내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대화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15인승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가지는 통학버스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연구주제와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예비연구를 통해 버스만 관찰하기에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어린

이집 입구, 복도, 계단, 교실에서의 유아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보장하고자 하였다.

## 2) 본 연구

연구자는 연구일정, 연구절차, 연구방법 등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를 A어린이집에 제출한 후 연구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부모들에게도 연구의 취지를 밝힌 동의서를 가정으로 배부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서에는 자료수집을 위해 녹음과 동영상촬영을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을 살펴보고자 15인승 통학버스에서의 참여관찰과 유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2016년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관찰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2016년 4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등원버스에서의 관찰 40회, 하원버스에서의 관찰 32회로 총 72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주 2-4회로 1회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90분 정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가능한 등·하원시간 모두를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의 안전벨트 착용확인, 인원 수 확인을 도와주며 차량지도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현장에 참여하였다.

통학버스에서 내려 교실에 들어가기까지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통학버스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신발장, 복도, 계단에서도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유아가 서로 가까이 앉아 상호작

용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녹음을 함께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 당일 통학버스의 전체 상황을 녹음한 뒤 전사하였으며 전사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바로바로 기록하였다. 관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아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적 맥락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찰 중에 유아에게 간결한 질문을 통해 비형식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있게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 (2) 면담

본 연구의 면담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28명과 통학버스지도교사 6명을 대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교사 면담은 연구의 자료수집단계에서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개인당 2-3회씩 진행하였다. 담임교사와의 면담은 일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간식시간, 점심시간, 유아의 귀가 후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 30-40정도 소요되었다. 교사 개별 면담의 질문의 주된 내용은 통학버스 이용 후 교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이나 기분을 물어보거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상황, 교실과 통학버스에서의 행동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들이었다. 유아면담은 유아 개인당 8-9회씩 개별면담이 이루어졌다. 한 공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통학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땐 통학버스 안에서 유아와 비형식적 면담도 진행하였다. 통학버스에서의 비형식적 면담은 질의응답으로 유아의 기분이나 생각을 직접 물어보거나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형식적 면담 9회와 비형식적 면담 22회로 총 31회, 유아와의 형식적 면담 18회와 비형식적 면담 78회로 총 96회의 면담이 이루어졌

다.

### (3) 녹음

녹음기는 두 대를 사용하였으며 등원버스 32회, 하원버스 26회로 총 58회 녹음을 하였다. 통학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녹음기를 설치할 때도 위치와 방향을 여러 번 조정하였다. 통학버스에서 유아 간 주고받는 대화를 담고 버스의 움직임에 녹음이 변형되지 않도록 버스 천장, 창문, 의자 위, 등받이 등 위치와 방향을 바꾸어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유아가 녹음기를 의식하며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 (4) 문서수집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현황, 유아관찰기록, 등·하원일지, 등·하원 차량 표를 수집하였다. 등·하원 일지를 통해 등원과 하원 시간을 확인하였고 차량 표를 통해 같은 버스를 타는 유아와 내리는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 (5) 연구자 저널

연구자 저널은 오디오 녹음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찰 마다 항시 노트를 준비해두어 틈틈이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상황적 맥락에 대한 설명과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구자 나름의 해석 등을 기록해 두어 현장을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는 통학버스에서 녹음한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와 유아, 교사와의 면담 후에 수집된 녹음 자료를 들으며 전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된 파일과 녹음 자료를 두 차례 확인하는 작업을 하며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록과정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즉시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통학버스의 상황, 분위기와 같은 단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통학버스에서의 현장관찰이나 유아와 교사와의 면담 이후 즉시 전사하는 과정은 다음 참여관찰 시 심도 있게 살펴볼 부분이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4>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관찰 기록		참여관찰 총 72회, 현장기록(376장)	
면담 전사본	2016년 4월 4일 ~2016년 9월 30일	형식적면담	유아 총 18회 (198장) 교사 총 9회 (208장)
		비형식적면담	유아 총 78회 (85장) 교사 총 22회 (61장)
녹음		비디오( 12시간), 오디오( 93시간)	
문서수집		어린이집 현황, 가정통신문, 교육계획안 유아관찰기록, 등·하원일지, 등·하원 차량표	
연구자저널		현장노트(81장)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딩이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분석적 귀납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고 심층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코드 안에서 의미있는 코드로 축약시키고 주제별, 내용별, 의미별로 묶는 코딩작업이다(김영천, 2012). 참여관찰과 유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정독하면서 내용의 핵심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는 세그멘팅 작업을 거쳤다. 세그멘팅한 자료들 중에서 1차적 범주로 만남과 헤어짐, 협력관계,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작업은 사례별 공통된 제목을 붙인 자료를 모아 범주화 하였고 범주화된 자료를 범주에 따라 컴퓨터로 기록하는 과정을 거쳐 분류하였다. 분류된 범주의 내용은 다시 반복적으로 읽어 내려가며 세부항목을 구성하였고 심층코딩작업을 통해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며 공통된 제목을 붙인 후 각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사례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와 해석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동료 연구자 2인과 연구 참여자인 교사와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타당도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측정법,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전문가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Marriam, 1994).

##### 1)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통학버스의 공간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참여관찰, 심

층면담, 녹음, 문서 수집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 참여자이면서 정보제공자인 교사들에게 참여관찰 기록의 일부분과 현장노트 기록 세 두 차례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연구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는 유아 특성과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도움을 받았고 이에 자료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오류를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 3)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자 유아교육전문가와 대학원 동료 연구자 3인의 조언, 비평, 새로운 견해 등을 제공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관점과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공간이지만 교사들에게는 지나칠 수 있었던 공간에 대해 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통학버스 공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와 교사를 참여관찰하고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과 또래와의 헤어짐과 만남, 또래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성, 자유로운 정서표현으로 범주가 도출되었다.

### 1. 헤어짐과 만남의 공간

유아들에게 통학버스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집과 가정을 오가며 가족, 또래와 만나고 헤어짐을 경험하였다.

#### 1) 가족과의 헤어짐과 만남

등원 시 유아의 컨디션은 유아가 그 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또한 통학버스 탑승 직전 경험에 따라 유아의 기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유아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버스 안에서 분위기는 매우 달라진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통학버스에 오르며 부모님과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1코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버스에 타는 유아는 해솔(만 5세)이다. 해솔이가 사는 아파트 동 앞에 버스가 멈추었다. 해솔이는 얼굴에 인상을 쓰고 엄마는 해솔이를 뒤에서 안아주고 있다. 버스 문이 열리고 교사가 해솔이에게 반가운 듯 인

사하였으나 해솔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칭얼댄다. 엄마는 해솔이를 달래며 버스에 태웠다.

안교사: 해솔아 해솔이 아침 먹었어요?

해 솔: ...

안교사: 형아 학교 갔니?

해 솔: ..

안교사: 해솔아 대답해야지~

해 솔: 갔어요..

안교사: 해솔이 엄마랑 떨어지는게 속상하구나?

해 솔: 네..

(2016. 5. 11. 참여관찰)

버스가 출발하자 교사는 해솔이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솔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교사의 물음에 결국 짧게 답변하는 해솔이를 볼 수 있다. 해솔이는 통학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만 바라보았다. 다음 사례에서도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 눈물을 보이는 헤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헤인이(만 3세)가 아빠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버스 문이 열리자 헤인이가 버스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고 헤인이 아버지는 헤인이를 향해 달려갔다. 헤인 아버지는 헤인이를 안고 버스로 오셨고 헤인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아빠”라고 말했다. 차에 타서 교사가 헤인이를 달랬고 버스 문이 닫혔다. 하임이가 눈을 감으며 “아빠 아빠”라고 말하며 눈물을 계속 흘렸다. 5분정도가 흐르자 헤인이는 눈물을 멈추었고 눈을 그대로 감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버스 문이 열리자 헤인이가 눈을 뜨고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려 교실로 들어갔다.

(2016. 8. 10. 참여관찰)

헤인이라도 아빠와의 헤어짐을 힘들어 하여 ‘아빠’ 를 외치며 눈물을 보였다. 헤인이는 버스에 올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눈을 감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등원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후 통학버스에 동승했던 교사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헤인이 담임교사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후 연구자는 헤인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자: 오늘 교실에서 헤인이는 어떻게 생활했나요?

이교사: 친구들이랑 역할영역에서 즐겁게 놀이하고 이야기나누기 시간에도 발표도 잘 하고 평소와 같이 잘 지냈어요. 아침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많이 심했었나요? 교실에선 괜찮았는데..

(2016. 8. 10. 교사면담)

버스 안에서 헤인이의 모습이 교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 다르게 교사는 헤인이가 평소와 같이 친구들과도 잘 놀이했고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진 못했다고 답했다. 유아가 버스에서 조용하게 앉아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보내고 이후 교실에 들어가 어느 때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등원버스에 오르는 유아도 있었다.

버스 문이 열리기전 혁준이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표정이 불편한 듯 일그러져 있었다.

안교사: 혁준아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혁준: (얼굴이 화난 듯 일그러져 있고 고개를 푹 숙임)

안교사: 혁준아 무슨 일 있니?

혁준: 엄마 싫어.

안교사: 혁준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혁준: (오른팔로 눈을 가리고)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중략)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 씩 내렸고 신발을 벗고 1층 복도로 들어왔는데 혁준이가 가장 마지막까지 신발장 앞에서 신발장을 손바닥으로 치며 서 있었다.>

안교사: 혁준아~ 혁준이가 기분 많이 속상하지? 선생님도 알아 우리 혁준이 속상한거~ 그럴지만 손으로 이렇게 쿵쿵 때리면 혁준이 손도 아프고 신발장도 울퉁불퉁해 질 것 같은데?

혁준: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할거야.

안교사: 어서 올라가자~ 교실로~

혁준: 이렇게 할 건데!

(2016. 6. 22. 참여관찰)

혁준이는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불편한 마음을 표출했다. 혁준이는 신발장에 머문 뒤 교실로 올라갔고 이 후, 혁준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혁준이가 교실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자: 혁준이가 어땠나요?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교사: 교실에 혁준이가 들어와서 보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혁준이에게 물어보니 “엄마랑 있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연구자: 선생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이교사: 처음엔 표정이 안 좋았고 제 옆에서 10분 가량을 앉아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 하고 난 후에는 잘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영역에서 놀이하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나누기 시간에도 손들어서 발표하고..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을 잊은 것 같아요~

(2016. 6. 22. 교사면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통학버스에서 혁준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혁준이가 통학버스를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써 활용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등원버스는 유아들에게 가족과의 헤어짐이 있는 공간이었던 반면에 하원버스는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유아들은 하원버스에 오르기 직전에 어린이집 1층 복도의 어린이용 의자에 앉아 교실에서 지낸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를 기다린다.

지훈: 나 오늘 발표 두 번이나 했다? (손에 들고 있는 종이왕관을 머리에 쓰며)

그래서 왕관 받은 거야.

혁준: 형아, 형아 왕관있어? 왕관 나 써 봐도 돼?

지훈: 너넨 없냐? 우리 발표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왕관 쓰는거야. 너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들으면 쓸 수 있고 안 들으면 못 쓰는거야.

혁준: 나 선생님 말씀 두 번 잘 들었어.

지훈: 그래. (종이왕관을 혁준이에게 주며) 나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 쓰게 해 줄거야. 엄마 진짜 진짜 행복하겠지?

(2016. 7. 4. 참여관찰)

유아들은 미술 작품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하원하여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듯 보였다.

하원버스에서 유아들의 분위기는 밝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즐거움이 유아들의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원버스에서 예술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다.

<예술이가 제일 먼저 버스에 올랐고 문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다.>

예술: 오예! 나 여기.

희성: (맨 뒷자리로 들어가며) 너 왜 맨날 거기 앉냐?

예슬: 난 여기가 좋아.

(2016. 5. 9. 참여관찰)

연구자: 예슬이는 차안에서 가장 앉고 싶은 자리가 따로 있어요?

예슬: 네.

연구자: 예슬이가 문 앞에 앉는 그 곳 맞니?

예슬: 네.

연구자: 왜 그 곳에 앉고 싶어요?

예슬: 엄마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연구자: 엄마를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예슬: 네 바로 엄마 보고 창문에서 다른 사람이나 앉는 사람 볼 수 있으니까요.

(2016. 6. 20. 유아면담)

예슬이는 가장 먼저 내리는 문 바로 앞자리를 가장 선호한다. 예슬이는 다른 친구가 문 앞자리에 앉을까봐 노심초사하여 하원버스에 급하게 오르는 날이 많다. 예슬이가 좋아하는 문 앞자리에 다른 유아가 앉게 되면 친구들이 앉아 있지 않은 자리 중에서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예슬이가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버스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내릴 수 있어 엄마를 빨리 만나고 창문 옆이라 밖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원버스에서 예슬이는 엄마를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때때로 하원버스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거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창문을 통해 찾거나 두 손을 들고 좌우로 흔들며 인사하는 유아도 있다.

김교사: 자 이제 4단지에서 내리는 친구들 준비하세요.

자연: (손가락으로 엄마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엄마가 엄마 우리엄마 저기 있다.

예슬: 우리엄마~ 우리엄마~ 안녕!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좌우로 흔들며 ‘안녕’을 외침)

희성: 어? (창문을 바라보며) 아! 아빠다. (흥얼거리듯)우리아빠다. 누나다.

(2016. 6. 16. 참여관찰)

예리: 수민이다. 내동생 수민이야!

용준: 어디? 어디 어디?

예리: 저기 아빠랑 같이 있잖아.

용준: 우리엄마는 왜 없는거야..

예리: 수민아!

용준: 엄마 저기 느리게 거북이 같이 걸어오잖아! 거북이! 거북이!

안교사: 자 이제 내릴게요. 한 명씩 차례대로 내리자.

예리: 아빠~ 수민아~ (교사의 손을 잡고 버스에 내려서 아빠 품에 안긴다)

(2016. 4. 20. 참여관찰)

유아들은 하원버스에서 내릴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찾기도 하였고 버스가 하차하는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맞이하는 가족을 먼저 찾으려고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하원버스는 유아들에게 가족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 2) 또래와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또래와의 만남을 경험한다. 유아들은 버스 출발 전 자연스럽게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하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중 몇몇 유아의 경우 통학버스에서 만나는 다른 반 유아와 함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였다.

예슬: (버스에 올라 지연이 옆자리에 다른 유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  
지연: (예슬이를 바라본다)  
예슬: 지연아, 나랑 같이 앉을래?  
지연: 그래.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슬이가 있는 앞자리로 이동한다)  
예슬: 우리 선생님 옆에 앉자.

(2016. 6. 16. 참여관찰)

하윤: 나 김지현 옆에 앉을래!  
지현: (하윤을 바라보며) 하준이는? 동생도 같이 앉아야지!  
하윤: 괜찮아 같이 앉으면 돼. 셋이 앉자.  
지현: 그래!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또 여기에 앉으면 되겠네.  
하윤: 우리 맨날 맨날 같이 앉을까?  
지현: 그래! 근데 나 태권도 가면 같이 못 앉아.

(2016. 5. 2. 참여관찰)

하원버스에서 유아들은 마음이 잘 맞는 또래와 함께 앉고 싶어 하였다. 통학버스 앞자리에 모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예슬이는 지연이와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같이 앉고자 하였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함께 상호작용하며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친한 유아와 함께 앉기 위해 자리를 미리 맡아 놓는 일도 있었다.

하용: 야 빨리와! 니 자리 내가 다른 애들 다 못 앉게 했어.  
지훈: (하용이 옆자리에 앉는다)  
하용: 나 잘했지? 동생이 여기 앉으려고 했어.  
지훈: 안된다고 엉덩이로 뽕 하고 날려버리지!  
하용: 하하하(소리내어 웃는다)

지훈: (소리내어 웃는다)

(2016. 6. 10. 참여관찰)

하용: (하원버스에 올라 안으로 들어가 맨 뒷좌석에 다른 유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아 나 최지훈 옆에 앉고 싶었는데..

지훈: (하용이를 바라보며) 야 최하용 내가 내일 니 자리 맡을게 알겠지?

하용: 응

혁준: (하원버스에 오른다)

하용: 나 오늘은 혁준이랑 같이 앉아야지. 야 김혁준 우리 앞에 앉자.

(2016. 8. 24. 참여관찰)

하용이와 지훈이는 통학버스에서 만큼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다. 5살때는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친한 친구였지만 6살이 되면서 반이 달라져 하용이와 지훈이는 유일하게 통학버스에서 만남을 가진다. 하용이와 지훈이는 먼저 하원버스에 오르면 꼭 자리를 맡아놓았다. 하용이가 지훈이 보다 집이 가까워 먼저 내리지만 하용이가 하원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 두 유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자: 하용아, 버스 탈 때 지훈이랑 함께하면 재미있니?

하용: 재밌어요. 빨리 가면 지훈이랑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놀아요.

연구자: 같이 못 앉을 때는 어떻게 하니?

하용: 그냥 앉아요. 지훈이 말고 다른 친구랑 앉아요. 아니면 동생이랑요.

(2016. 7. 12. 유아면담)

통학버스에서의 또래 간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관계가 재구성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즉, 동일 연령의 유아는 통학버스에서의 만남을 통해 새로

운 또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혼합연령 유아들과의 관계도 형성되었다. 통학버스가 혼합연령 유아들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은 하원버스에서 하차 후의 또 다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하였다. 그들은 집 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만날 계획을 나눔으로써 또다른 만남을 약속하였다.

민준: 야, 너 우리 집 놀러올래?

혁준: 너네 집 뭐 있는데? 파워레인저 엔진포스있냐? 난 하나 밖에 없는데

민준: 있어. 근데 하나는 누나 꺼야. 만지면 안 돼.

혁준: 엄마한테 물어볼게.

민준: 물어봐. 엄마가 된다고 할 걸?

혁준: 안 된다고 하면 방구 뽀옹 하하하하하하.

민준: 하하하 두 번, 방구 세 번, 방구 으악 지독해.

혁준: 너 놀이터에서 놀래? 나 놀거야.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2016. 6. 16. 참여관찰)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친구와 헤어지기 싫은 유아들의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가까운 동네에 살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유아에게는 하원 후 또 다른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집에 초대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일 들이 통학버스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 교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 중 ‘우리 집에 놀러올래?’ 와 같은 말은 하루일과를 지내다보면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원버스에서는 더 가깝고 긴밀한 약속들이 오고 가며 이는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들이 하원버스에서 내려 무언가를 함께 하자는 약속을 주고받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 있다. 주변 시장의 장날이거나 아파트 단지의 장이 서는 날이다.

주아: 오늘 핫도그 먹는 날이다. 나 엄마랑 핫도그 먹을거야.

범수: 나도 먹을래.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거야.

주아: 오빠도? 오빠도 먹을거야. 핫도그?

범수: 응. 우리엄마는 떡볶이 좋아해. 치킨도.

(2016. 5. 18. 참여관찰)

장날이면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다. 주아와 범수는 아파트 단지에 함께 하차하는 유아들이고 장이 서는 날이면 분식거리를 먹고 귀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하원버스에서는 가족을 만나는 일 다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에 대한 기대도 가득했다. 또한 유아들이 가장 기대하는 요일은 대부분 금요일이었다.

혜인: 오늘 우리 집에 이모 오는데.. 오늘 이모 오면 우리 할머니 만나고 하울이랑 나랑 엄마랑 아빠랑 이모랑 이모부랑 할머니랑 식당가요.

교사: 혜인이 오늘 이모만나니?

혜인: 네 우리 이모랑 이모부랑 결혼해요 이제. 원재울! 나 오늘 이모 만난다?

재울: 나도 이모 있어. 나도 이모 만났는데 언제.

(2016. 7. 8. 참여관찰)

민준: 오예! 오늘 정민이 형아 온다. 우리 집에~

지용: 정민이 형이 누구야? 니네 형이야?

민준: 응 형아야 우리 형아. 아홉 열 살 형아야 학교다녀. 빨리가서 형아랑 놀아야지 형아 오면 밥도 먹고 놀이터도 가고 키즈카페도 간다?

(2016. 8. 12. 참여관찰)

유아들은 버스에서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계획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 식당에 가거나 키즈 카페에 간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며 만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휴일에 대한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의 만남을 통해 혼합연령 간 유아나 또래와의 새로운 관계도 형성하였으며 또 다른 만남으로 기약함을 알 수 있었다.

## 2.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는 공간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나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교사의 눈을 피해 장난감, 간식, 스티커 등을 비밀스럽게 공유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 1) 배움과 가르침

통학버스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이용한다. 이들 간에는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고 의미를 답해주는 상호작용이 종종 일어났다. 유아들은 서로 언어 표현을 듣고 올바른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를 상대의 수준에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희성: 야야 해파리가 똥똥 바다에 떠다녀. 나 피라미 먹어봤다?

예슬: 나 물고기 안 좋아해

희성: 야 해파리 만지면 감전돼

예슬: 진짜?

지연: 감전이 뭐야?

예슬: 감전? 감전은 전기가 몸에 들어가서 지지지지직 하는거야.

(2016. 8. 11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 제시된 것과 같이 예슬이와 희성이 바다 속 생물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자 연령이 어린 지연이는 언니·오빠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감전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지연이가 궁금해 했던 단어를 예슬이가 이해하여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예슬이는 동생에게 단어의 뜻을 알려주며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고 언니인 예슬이의 설명을 경청하며 감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혼합연령뿐 아니라 동일 연령의 유아들 간에도 바른 언어 표현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용: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 하늘로 갔어. 진짜야! 우리할아버지 죽었다?

은정: 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야. 어른한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지용: 응.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2016. 6. 22. 참여관찰)

은정이와 지용이는 같은 나이지만 서로 다른 반에 소속되어 있다. 지용이와 은정이는 같은 장소에서 승·하차 하며 하원 차량 이용 시 두 유아는 내리는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다.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지용이와 은정이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은정이는 지난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간 이야기를 하였다. 지용이가 ‘할아버지가 죽었다.’ 라는 표현을 하자 은정이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라고 올바른 표현으로 안내해주었다. 두 유아의 대화를 통해 지

용이는 우리 사회의 높임말 중 하나인 관습적 표현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가 통학버스에 오름과 동시에 어린이집 생활은 시작된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지켜야하는 예절과 안전규칙 등을 교사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안교사: 안녕하세요~ 공수.

혁 준: 안녕하십니까?

안교사: 엄마께 인사드리자.

혁 준: 다녀오겠습니다.

..(중략)

안교사: 승아 안전벨트 했니?

승 아: 네 했어요.

안교사: (승아가 안전벨트를 했는지 확인한다)

..(중략)

안교사: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안전 선생님께 인사드리자! 안전선생님!

아이들: 감사합니다.

안교사: 차 멈추면 안전벨트 푸르고 내려오세요. 동생들 안전벨트 잘 푸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6. 5. 11. 참여관찰)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교사와 예절, 안전에 대한 내용을 나누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교실에서와 같이 통학버스에서도 유아들은 배움과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었다. 유아-교사의 대화에서는 교사가 유아에게 언어적 모델링을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주아: 시피는 강아지예요. 남자 아빠이름은 김문수 예요.

박교사: 그럴구나~ 강아지 이름은 시피고 아빠 이름은 김 문자 수자 이시구나!

주아: 아빠 뱀 그려줬는데..

박교사: 아빠에게 왜 뱀 그려준거예요?

주아: 아니요 그냥 그려주고 싶어서요. 주아가 안 좋아해도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2016. 5. 13. 참여관찰)

월요일은 유아반 주말지낸 이야기나누기가 진행되는 날이다. 주아는 등원버스에 오르며 손에 주말지낸 일을 그림으로 그려온 종이를 들고 있었다. 교사는 주아가 아빠의 성함을 말하자 이름 뒤에 ‘자’ 를 붙여 높임말로 다시 아빠의 성함을 언급해 주었다. 유아는 교사를 통해 어른에 대한 높임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민준: 선생님! 여기 빵꾸났어요.

이교사: 바지에 구멍이 났어? 우와~ 멋진데 멋있으라고 찢어진 바지 아니니 민준아?

민준: 아니에요. 그냥 빵꾸 난거예요.

이교사: 선생님은 바지 멋지라고 찢어진줄 알았네!

민준: 네 저번 날에 넘어질 때 여기 까졌을 때 빵꾸났어요.

이교사: 구멍났어요?

민준: 구멍났어요

이교사: 옷이 찢어져 이렇게 뚫렸을 때는 빵꾸가 아니라 구멍이라고 하는거야. 올바른 표현은 구멍이에요. 알겠죠?

(2016. 5. 16. 참여관찰)

민준이가 옷에 난 구멍을 보고 ‘빵꾸’ 라고 표현하자 교사는 ‘구멍’ 으로 정정하여 표현해준다. 그러자 민준이는 교사의 말을 듣고 ‘구멍났어요.’ 라고 바른 언어로 표현하였다. 유아는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을 통해 바른 언어표현

을 듣고 직접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교사는 민준이에게 구멍이라는 올바른 표현에 대해 다시 언급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통학버스는 유아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이나 문장에 대한 바른 표현을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공간이었다. 유아 사이에 나타나는 도움은 유아간의 협력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유아 뿐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가르침과 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2) 비밀스러운 거래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몇몇 유아는 교사의 눈치를 보거나 친구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고자 하였다.

<희성이와 범준이가 등원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로 이동한다. 희성이가 범준이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한다.>

희성: 권범준 여기 앉아.

범준: 응.

희성: (범준이에게 양손으로 입을 가리고 귓속말을 한다)

범준: (범준이가 고개를 두 번 끄덕인다)

희성: 알겠지? 알겠지?

범준: 응.(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2016. 8. 9. 참여관찰)

연구자: 범준아 아까 희성이랑 무슨 이야기 했니? 선생님 궁금하다.

범준: 비밀이에요.

희성: 야야야 말하지마! 말하지마!

연구자: 비밀이야기야?

범준: 네 비밀이에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2016. 8. 18. 비행식적면담)

희성이와 범준이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귓속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연구자는 그런 모습을 본 뒤 범준이에게 비행식적 면담을 통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질문을 했으나 희성이와 범준이가 비밀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작은 장난감을 통학버스에서 꺼내어 다른 유아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민준: 이거 보여줄까? 엔진포스야.

용준: 오! 이거..

민준: 우리 집에 이거 두 개 있어.

용준: (교사를 한번 바라보고 민준이를 바라본다)

교사: 민준이 뭐하니? (교사가 민준이를 바라본다)

민준: (조심스럽게 가방에 장난감을 넣는다)

용준: 선생님! 김민준 지금 장난감 꺼내요. 가방에 들어있어요.

이교사: 열린 가방에 넣으세요. 어린이집에는 장난감 가져오지 않아요.

(2016. 6. 14. 참여관찰)

민준이는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을 꺼내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용준이가 장난감에 반응을 보였다.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눈치 채 듯 민준이를 부르자 민준이는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나 사탕 등으로 다른 유아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이 친구와 물건을 거래하는 일도 관찰되었다. 유아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일은 교사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이루어졌다.

지용: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야 너 이거 좋까?  
도연: 나도 집에 많아 나 집에 다섯 열 개 있어.  
지용: 나도야. 나도 열 십 개 이 십 개야.  
도연: 너 그거 주면 내가 이거 좋게 (스티커를 내밀며)  
지용: 그래. 여기.  
도연: (스티커를 주고 사탕을 받는다)

(2016. 5. 9. 참여관찰)

도연: 지용아 나 사탕있는데 너 좋까?  
지용: 사탕? 마이썸?  
도연: 마이썸 세 개 있어. (검지 손가락을 입술 가까이 댄다)  
지용: (도연이를 바라본다)  
도연: (마이썸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좋까 말까 좋까 말까  
지용: 너 일른다? 선생님!  
도연: 야야야 알겠어 알겠어 좋게 주면 되잖아.  
지용: 니가 안좋라하니깐 내가 선생님한테 일리지  
도연:(가지고 있던 마이썸을 지용이에게 하나 준다)

(2016. 7. 22. 참여관찰)

통학버스에 앉아 있는 몇몇 유아들의 손에는 간식거리가 쥐어져 있거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유아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소유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물건을 통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례에서 보듯이 지용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작은 사탕이다. 사탕을 본 도연이가 사탕과 스티커의 교환을 제안했고 지용이는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어느 날은 도연이가 츄잉캔디를 지용이에게 보여주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도연이가 지용이에게 츄잉캔디를 줄 것을 고민하고 있자 지용이가 교

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 지용이의 행동에 당황한 도연이는 들고 있던 슈잉캔디를 지용이에게 하나 건네었다.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통학버스에서 유아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교사: 원에서도 단팍이고 그런데 교실에서는 약속이 있으니깐 제가 보고 있으니깐 잘 안 다투다가 차량 안에서 꼭 뭔가를 주고받고 거래를 하다가 갈등을 보여요.

연구자: 아 교실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차량에서만 나타나나요?

김교사: 네. 학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월 선물로 받아왔다 그래서 그런 적이 없는 데..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면 차량에서 그랬다. 라고 말하죠.

연구자: 정말 흥미롭네요.

김교사: 더 재미있는 건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아는지 맨 뒷자리로 가서 꼭 그래요.

(2016. 7. 11. 교사면담)

교사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교실 안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교실과 다른 규칙을 가진 버스 안에서는 유아 간 비밀스러운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통학버스 안에서 유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그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연구자의 눈치를 살피며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였다. 유아들의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거래는 통학버스 안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교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 했다.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또래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어린이집에 가져오지 않기로 약속한 장난감과 같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은밀한 거래를 하였다.

### 3. 자연스러운 표현의 공간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교실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버스에서 의젓한 모습을 보이거나 담임교사가 있는 교실과 달리 매일 바뀌는 버스지도 교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유아도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버스를 교실에서의 활동을 재구성하거나 확장, 변형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 1)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공간

통학버스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유아는 유아의 행동 변화의 특징이 교실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합연령이 함께 모인 통학버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유아는 교사 또는 윗 연령 유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어린 연령의 유아 경우는 교실에서는 썩썩하고 의젓한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통학버스에서는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교사나 윗 연령 유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속상해 하였다.

재욱: (안전벨트를 매려고 벨트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힘을 주어 끌어당기고 있다)

정교사: 안전벨트 모두 했나요?

재욱: (벨트를 잡아 당기며 울상을 지으며) 히..히..

정교사: 재욱아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재욱: (눈에 눈물이 고이며) 도와주세요..

정교사: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벨트 매는게 어려워.. 속상했구나?

(2016. 9. 7. 참여관찰)

안전벨트 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재욱이는 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다.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재욱이의 의지와 다르게 벨트가 움직이지 않자 속상한 감정이 표현된 듯 보였다. 이러한 재욱이의 모습과 다르게 김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욱이가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또래들에 비해 의젓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교실에서 재욱이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김교사: 반에서 재욱이는 숨어있는 반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고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친구예요.

연구자: 재욱이가 어떠한 일에 속상해 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일이 있나요?

김교사: 교실에서 생활할 때 다른 유아들에게 비해 형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서 갈등이나 어떠한 상황에 눈물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활발하다 보니 바깥놀이 할 때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울죠.

(2016. 9. 14. 교사면담)

7세 유아들이 동생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용준:(하원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를 향해 걸어가며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생들을 살펴보며) 도와줄까? 형이 도와줄게. 도와달라고해 그럼 도와줄게.

박교사: 민준이는 정말 멋지구나! 역시! 동생을 제일 잘 도와주는 것 같아.

용준: 선생님 저는 맨날 다른 동생들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요.

(2016. 6. 27. 참여관찰)

정교사: 자리에 앉아보자! 안전벨트 매지 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야기 하세요.

용준: 선생님 제가 동생들 도와줄게요.

(2016. 7. 6. 참여관찰)

연구자: 교실과 통학버스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유아가 있나요?

김교사: 용준이요. 용준이는 동생들이랑 함께 하는 통학버스에서 만큼은 진짜 7살 형님 같이 의젓해요. 처음엔 몰랐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교실에서는 장난꾸러기인데.. 용준이가 장난꾸러기 인건 저희 반 교실에서만 그런건가 봐요..(웃음)

(2016. 8. 10. 교사면담)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용준이는 통학버스와 교실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교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통학버스에서 용준이는 의젓하고 동생들을 챙겨주는 형님의 역할을 경험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교실에서는 모범생인 유아가 통학버스에서는 장난꾸러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통학버스에서 희성이는 교사들에게 주의를 많이 받는 편이다. 의자에 바르게 앉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발로 의자 차지 않기, 안전벨트 푸르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기 등의 주의를 받는다.

(2016. 8. 10. 참여관찰)

교실에서 희성이는 가방정리, 언어전달장, 등원 후 책 3권읽기 등 교실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고 지켜야할 약속에 따라 자유선택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었다. 어진반에서의 희성이는 교사의 안내에 잘 따르고 친구들과의 갈등에서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는 유아로 보여진다.

(2016. 8. 22. 연구자저널)

희성이는 통학버스에서 교사들에게 안전이나 예절에 있어 주의를 받는 일이 많은 유아였지만 교실에서는 또래에게 모범을 보이는 유아로 공간에 따라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왜 교실에서는 멋진 희성이고 버스에서는 약속 안 지키는 희성일까?

김희성: 어진반에는 칭찬해주고 또 약속 지켜야 하고 나도 약속 잘 지키니깐 좋은데 버스에서는 동생들이랑 있고 또 빨리 집에 가니깐.. 또 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음.. 또 어진반에서 처럼 장난감 놀이 안하니깐..

(2016. 7. 14. 유아면담)

희성이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가 교실은 규칙 있는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통학버스를 교실과 다른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희성이는 통학버스가 교사와 유아가 매일 바뀌는 특성상 체계적인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간으로써 다름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에게 통학버스는 교실과 다른 공간이며 버스지도 교사와 탑승 유아가 매일 다르고 혼합연령으로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승·하차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유아의 행동 특성이 변화되는 이유는 공간에 따라 유아가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 2) 수업 재현과 변형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노래 개사하기, 게임, 경험나누기 등 교실에서 진행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민준: ('고마워요' 노래를 부른다)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해줘서 고마워

용준: (노래를 부른다) 산에 가서 고맙대 산에 가서 고마워요~아빠 아침에 출근

할 때! (노래를 멈추고)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고 떠난다고?

민준: 아니야.

용준: 알겠어. 그럼?

민준: (노래를 부른다)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해줘서~

용준: 뽀뽀? 뽀뽀? 뽀뽀해줘서 고마워?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비행기 타고 출근해! 엄마! 아침에 방귀 꺼서 냄새 맡아줘서 고마워!

(2016. 5. 16. 참여관찰)

용준이는 통학버스에서 배운 노래를 변형하여 부르는 것을 즐겼고 개사하거나 음을 다르게 부르곤 하였다.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이 노래를 개사하거나 음과 박자를 변형하여 부르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예슬: (애국가 노래를 부르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범준: 동해물과 김예슬이 동동동 동동동동

예슬: 야 하지마~

범준: 동해물과 아빠아아 김김김 김먹고 하하하하하

예슬: 너도 한다, 그럼! 어 박범준영 차타고 우주밤하늘까지이이 똑떨어졌다.

범준: (웃는다) 하하하하하

(2016. 8. 24. 참여관찰)

예슬: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범준: (예슬이의 콧노래 음을 따라서 부름)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손잡고나가

희성: 아니지 달려라 냇물아 이거야

범준: 달려라 냇물아 푸른별판을~

예슬범준희성: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범준: 야 우리 빨리 부를까?

희성,범준: (기존노래보다 빠르게 부르며) 날아라 새들아 푸른하늘을 달려라 냇물

아~

예슬: 하하하하하

범준: (빠르게 부르며)오월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야 진짜 빠르지?

지연: 언니 배운거야? 노래?

예슬: 어린이날 노래야 너도 같이 부를래?

지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는 표현을 한다)

(2016. 5. 9. 참여관찰)

통학버스에서 예슬이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나 계절 또는 주제 관련 기존의 노래를 빠르거나 개사, 박자 등을 변형하여 노래를 만드는 활동으로 전개한다. 통학버스에 앉아 있는 짧은 시간에도 유아들은 노래의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집과 집을 오가는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그 날 교실에서 배운 활동 내용을 복습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하윤: 이거 반사 되서 그래 그래서 무지개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지현 하윤: 가위바위보

(중략)

지현: 꿀밤 맞아?

하윤하준: 보리보리쌀.

하윤: 야아 니가 주먹해야지.

하윤: 이번엔 이번엔 니가 해.

(2016. 5. 16. 참여관찰)

하윤: 우리 끝말잇기 할래?

지현: (하윤이를 바라봄)

하윤: 나 먼저 한다. 지렁이.

지현: 이빨

하윤: 빨대

지현: 대머리 하하하하하

하윤: 대머리 뽀뽀? 하하하하

(2016. 5. 18. 참여관찰)

통학버스에 올라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유아들의 다양한 놀이가 시작된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서로 마주보며 앉거나 정면을 함께 바라보고 앉아서 하는 말놀이, 손을 움직여서 하는 놀이 등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학버스를 오로지 가정과 어린이집을 오고가는 이동 수단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안전의 틀 속에서 가위바위보, 보리쌀, 끝말잇기, 옆 사람에게 전달하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하윤: 선생님 태풍 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김교사: 어떻게 되는데?

하윤: 바람 엄청 세게 불고 비 많이 내려요. 그게 태풍이에요. 우리선생님이 그랬는데요 태풍 오면 집도 나무도 다 날아간대요. 집에서 있어야하고 위험한 태풍이래요. 그리고 비올 때 우산 쓰고 장화신고 어 비 옷 입어요. 검정색이나 까만색 입으면 안 보여요. 빨간색이나 노란 이런 거 입어야 해요. 나 집에 있는데 그거 빨간색.

지현: 나도 있어 빨간색 너 그림 뭐냐? 난 엔진포스.

(2016. 7. 15. 참여관찰)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학급에서 당일 배웠던, 경험했던 이야기도 나누었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교육이 있는 날이기에 태풍이라는 주제가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생활주제나 이야기나누기 주제를 주고받으며 통학버스를 대화의 장을 구성하기도 한다.

용준: 너 이비인후과 원지 알아?

혁준: 나 알아~ 나 코 코 나오고 감기 나서 갔어 엄마랑

예리: 맞아 귀나 코나 목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는거야

그럼 너 정형외과 알아? 모르지?

혁준: 알아~

예리: 원데? 맞춰봐

용준: 거기 엑스레이 찍고 어 팔 딱 부러지면 가서 흰색 그 붕대 감고 그래

우리 반에 엑스레이 찍고 병원놀이 할 수 있어

(2016. 6. 27. 참여관찰)

유아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급 별 생활주제를 쉽게 알 수 있다. 통학버스 안은 유아에게 있어 주제별 이야기 공간이자 유아 주도적 이야기나누기 시간이기도 하다. 용준이와 예리의 반은 ‘병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5살인 혁준이는 7살인 용준이와 예리를 통해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을 볼 수 있다. 통학버스는 다양한 연령이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혼합연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의 폭을 넓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준: 도둑이 나타나면 비밀번호 스티커로 붙여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웅~ 전화 해서 도둑을잡아가요 도둑은 물건만 가져가지만 강도는 물건도 가져가고 사람도 놀리면서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안교사: 매우 무서운데요?

민준: 강도는 엄청 무서운거예요. 강도가 더 나쁘겠어요 도둑이 더 나쁘겠어요?

안교사: 강도?

민준: 그래요 강도가 더 나쁘죠. 아까 말해줬잖아요. 물건도 훔쳐가고 사람도 놀리고

용준: 야 강도 사람 안 놀려.

(2016. 5. 16. 참여관찰)

유아는 상호작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민준이네 반은 생활주제로 ‘우리 동네’ 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일 이야기 나누기 주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었다. 민준이가 말하는 내용은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을 그대로 재연하는 듯 보였고 버스 안은 교실에서 진행된 활동이 새로운 활동과 놀이로 재구성되는 공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는 교실에서의 활동을 통학버스에서 재구성해 나가고 확장해나가며 통학버스를 복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하고 또래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정서 표현을 경험하였다. 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헤어짐과 만남의 공간

유아들은 아침에 어린이집 버스에 오르면서 가족과 헤어짐을 경험했고 하원 버스에서는 가족과 만나는 설렘을 느끼며 하원했다. 통학버스는 가족의 헤어짐과 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또래와의 만남과 헤어짐의 공간이었다. 유아들에게 통학버스는 같은 반, 동일 연령 또는 다른 연령의 유아와 만나고 헤어지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버스에 오르기 전 부모와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었다. 유아들은 통학버스를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유아는 불편한 감정이나 속상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존재한다는 김혜영(2008)의 연구와 같이 유아는 통학 버스에서 부모와의 헤어지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감정으로 표출하였다. 유아는 나름의 방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양시내, 2007)에 비취볼 때 통학버스

에서 유아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은 유아에게 있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발산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는 이순금(2005)과 이호진(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유아가 통학버스에서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고명주(2003)의 연구에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을 욕구 충족을 위한 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쉼의 공간에서 유아는 또래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알아가는 단계로 유아는 무의식중에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김미경, 2004). 특히 편안한 심리적 안정을 통해 유아가 하루일과를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원하는 유아의 경험은 편안한 어린이집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였다. 유아들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이용하는 통학버스에서 다른 유아와 함께 앉아 새로운 만남을 이어갔고 각자의 교실이나 집으로 향하는 헤어짐을 경험했다. 오채선(2000)에 의하면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은 체험이자 유아들의 생활세계이고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유아는 집단의 소속과 이탈을 경험하며 또래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학버스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유아들이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한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앞선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아들은 비형식적인 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또래와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심을 표출하며 관계를 형성한다는 고명주(2013)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아는 통학버스를 다른 반 친구나 동생, 형과 마주 앉아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나 가까운 장소에서 순차적으

로 승·하차하는 유아들은 하원 후에 만날 것을 계획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약속을 정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의 하원 후에 이루어지는 교류는 유아들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친한 또래들은 약속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연구(김진영, 1997; 장현진, 2015)를 살펴볼 때 유아들이 통학버스에서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들만의 친밀감이 형성되어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유아들은 자신들만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고(박승규, 2004) 있으며 유아들이 의미를 부여한 공간에서도 또래와의 만남과 헤어짐이 공존하고 또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는 공간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의 경험은 관계의 이해를 돕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통학버스에서 혼합연령 간의 상호작용은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통학버스에서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제일 뒷자리 구석에 앉거나 교사의 시선이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숙여 조용하게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였다. 윗 연령의 유아가 아래 연령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유준호(2005)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통학버스에서 혼합연령의 관계는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거나 수직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계설정을 이루는 상호 교환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혼합연령 유아들의 상호 교환적 관계는 서로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한다는 김윤희(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많은 연구들은 혼합연령간

유아들의 상호작용이 서로의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인지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들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덕건, 1997; 조재현, 2003; 허혜경, 1994). 이러한 협력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언어적인 발달이다. 한금희(1997)의 연구에 따르면 윗연령과 아래 연령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발달은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동일 연령간의 상호작용보다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혼합연령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혼합연령간의 상호작용의 긍정적 요소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통학버스에 어떠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요소와 중요성을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들의 경우 통학버스에 승차하는 순간부터 어린이집의 생활의 시작이고 또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교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통학버스에서 나타난 친구 관계와 혼합연령간의 유대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실에서의 유아 관계 뿐 아니라 통학버스에서의 유아 관계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또래와 은밀한 거래를 하였다. 통학버스와 교실은 공간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통학버스의 경우는 차량지도교사가 매번 바뀌고 안전에 대한 규칙을 우선 시 하기에 유아에게 있어서 등하원시간은 교실과 다른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버스 안에서는 유아들은 사탕과 작은 장난감이 주고받으며 교사의 눈을 피해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랑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장현진(2015)의 연구에서 남아는 로봇, 블록, 딱지와 같은 장난감을 여아는 장신구, 스티커 등 예쁜 악세사리나 학용품을 자랑하고 뽐낸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유아에 따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서로 달랐으며 이 물건을 뽐내고 공유하

고자 하였다. 대체로 유아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버스에서 교사와 가장 거리가 먼 맨 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비밀스러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 비밀을 공유하는 일은 즐거움을 주고 주변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한진주(201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유아는 통학버스를 무한한 변형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통학버스를 무한한 변경 가능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언어, 행동, 또래관계 등 유아의 경험을 관찰 할 수 있는 유아관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 3) 자연스러운 표현의 공간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평소 교실 생활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 몇몇 유아는 교실에서의 모습과 다르게 통학버스에서 동생을 돕거나 교사를 대신하여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등의 의젓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던 반면에 몇몇 유아는 교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유아들은 교실에서의 경험과 사건을 통학버스에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교실에서와 다른 새로운 모습이 표출되었다. 교실과 다르게 혼합연령이 함께 있는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이 아래 연령인 동생을 돕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공간 안에서의 유아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도움이나 주고받는 협동의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강미라, 2010)는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혼합 연령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는 유아들에게 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경험하거나 또래간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담임교사가 아닌 교사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유아에 대한 교사의 고충을 담은 연구(김현정, 2012)와 같이 통학버스에서 만나는 다른 반 교사에 대

한 유아의 태도나 정서적 표현이 담임교사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유아들에게 통학버스는 자유로운 표현의 사회적 공간이었다. 공간에 따라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유아는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언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바른 정서 표현은 유아 스스로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을 습득하게 하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주희, 2016). 교사는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 표현을 통한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과 버스에서의 유아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고 유아가 머무는 공간을 살펴봄으로써 통학버스에서의 공간이 유아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유아에게 있어 통학버스가 자유로운 정서 표현의 공간일수록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는 교실에서 진행한 활동을 재현하고 새로운 활동으로 변형하여 재구성하였다. 유아들의 놀이는 유아의 하루생활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김양지, 정계숙(2011)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노래 부르기, 끝말잇기, 가위바위보, 생활 주제별 이야기나누기 등의 모든 활동이 어린이집 생활에서 경험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고 통학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집에 가는 시간임 동시에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 통학버스 안에서 하는 놀이는 최대한 안전을 지키고 제한된 움직임만이 허용되는 것을 놀이라고 표현하였다. 유아들이 통학버스에 생활 주제별 이야기의 시작으로 통학버스 안은 혼합연령간 대화의 장이 된다. 유아는 단순한 이야기주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비교해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거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상황을 예측하기도 한다. 유아는 서로의 감정, 경험 등을 공유하며 서로

가까워진다는 장현진(2015)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유아들은 통학버스를 이야기의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또래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진행된 활동을 그대로 재연하는 반복적인 경험은 유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박영현, 2011) 정서 인식과 감정 이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방승희, 1997)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교실에서의 활동을 확장하고 반복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우리는 통학버스의 교육적 의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2. 결론 및 제언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유아 경험 탐색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집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를 경험한다. 유아들은 등원버스에 승차하면서부터 어린이집의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학버스는 유아들에게 새로운 또래를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었고 만남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유아는 통학버스의 특성상 승·하차를 통해 가족 또는 또래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헤어짐을 경험하며 유아는 통학버스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속상한 일이나 불편한 마음을 이동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하원버스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설렘을 경험하였으며 하원 후의 일정을 계획하고 약속을 정하였다. 이처럼 유아에게 통학버스는 타인과의 만남을 연결해주고 유아들의 상호적 관계를 이어주는 공간이자 정서적 안정의 공간이었다.

둘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지식과 정보, 정서뿐 만 아니라 물질적 요소를 서로 주고받는 상호 교환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혼합연령 간의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통학버스에서 혼합연령의 유아들은 근접발달 영역 내에서 인지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혼합연령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은밀한 거래도 이루어졌다. 유아들은 장난감이나 사탕, 과자 등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버스의 제일 뒷자석에 앉거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통학버스에서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통학버스에서 교실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교실과 다른 행동, 모습에 있어 양면성 보였다. 교실에서는 모범적인 모습이 통학버스에서는 버스 예절에 주의를 받기도 하였고 교실에서는 놀이와 친구관계에 주의를 받는 유아가 통학버스에서는 동생들을 배려하고 돕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교실에서의 활동을 재구성하여 표현하거나 반복하였는데 유아는 노래를 부르거나 생활주제에 따른 이야기나누기 등을 확장하고 반복하며 새로운 활동으로 변형하였다. 이처럼 유아는 통학버스에서 교실에서와 다른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통학버스에서 유아들은 만남과 헤어짐의 경험, 또래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성, 자연스러운 정서표현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통한 유아의 경험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기 초에 시작하여 24주간(6개월)에 걸쳐 살펴본 연구로, 유아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따라서 학기 초에서 학기 말까지의 1년의 과

정을 걸쳐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적응 변화와 또래 간 관계를 통한 경험을 살펴본다면 신학기 등원에서부터 적응기에 접어드는 과정을 통해 친한 유아가 변하는 과정이나 갈등, 문제해결과 같이 유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통학버스에서의 교사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학버스에서 유아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학버스 이용은 유아만이 아닌 지도교사와 차량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학버스에서의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통학버스 안에서 유아-교사가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여 새롭고 다양한 관계와 통학버스에서의 교사 경험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통학버스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버스 지도 시 교사의 교육관이나 철학 또는 버스 지도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교사들의 통학버스 이야기를 부각시켜 유아가 아닌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통학버스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경아, 홍용희(2014). 반석어린이집 만 3세반 교사들이 경험하는 기본생활 습관교육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과학연구**, 45(1), 1-28.
- 강미라(2010). 혼합연령보육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행동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숙(1996). 유치원 교실의 물적 환경이 유아놀이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2008). 노래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다운증후군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명주(2014). 어린이집 경계 공간에서의 유아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경, 정계숙(2009). 유아의 실외 집단놀이 규칙 만들기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생태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8(4), 187-209.
- 고준호(2014). 어린이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진호(1993). 교육경험의 질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향림(2009).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자유선택활동 시간에서의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의미와 특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59-82.
- 교육부(2001).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 1. 총론.
- 구수진(2014). 전이공간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은미(2008). 보육시설 통학버스 안전운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아교**

- 육·보육복지연구, 12(4), 271-291.
- 권세경, 이순영(2005). 물리적 환경 차이에 따른 영아의 탐색 및 놀이 행동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6(1), 219-236.
- 권태훈(2011). 아동 행태 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공간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미(2010). 시간연장 보육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일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리(2016). 만 5세 유아들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연구: 실내자유선택 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2). 유아의 발달에 따른 감정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연구**, 6(1), 131-149.
- 김보라(2013). 유아의 놀이감 남겨놓기의 의미: 쌓기놀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운(2008). 실외놀이터 공간구성에 관한 만 5세 유아의 요구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78).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 숙(1995). 유아의 인기도와 놀이상황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문제 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욱(1995).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발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연경(2015).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의 동시성 분석. **한국육아지원학회**, 10(3), 109-131.
- 김영순(2010). 유치원에서 또래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인문콘텐츠**, 19, 35-59.

- 김영신(2007).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2), 73-92.
-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윤영(2014). 초등학교 교실 공간의 의미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2005). 혼합연령집단의 협력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변화. 마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2010). 유아 또래관계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방법을 중심으로(1995년~2009년). **아동학논집**, 31(5), 131-149.
- 김은정(2015). 만 4세 유아들의 또래 간 긍정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중(2008). 정신지체아의 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량(1987). 유치원 교실의 공간배치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1997). 유치원에서 또래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천수(1994). John Dewey의 경험과 반성적 사고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윤(2009). 어린이 놀이터의 유아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1), 99-117.
- 김현정(2012). 방학 중 중일반 거점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와 교사의 경험 이야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8).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비밀장소가 지니는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호현(2016). 유치원 교실 상호작용 속의 유아의 자유와 교사의 권위: 솔잎 유치원의 질적연구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태 (2012).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유아들의 의사소통의 의미. **한국 영유아 교원교육학회**, 16(4), 303-326.
- (2015).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4), 197-221.
- 류송미(2001). 유아의 친밀도 및 성과 연령에 따른 또래 간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경, 최선녀(2015).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2), 1-20.
- 문유정(2012). 사회적 능력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2011). 만 5세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인식.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규(2004). 어린이 지리학 초등지리교육적 의미. 『한국 지리환경교육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1), 3-11.
- 박영태, 이경님(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자기 통제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35-256.
- 박영현(2011). 이야기이 반복적 경험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예리(2002). 어린이 도서관의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연구: 유아 대상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가구배치를 중심으로.

- 박옥희(2000). 유아의 발달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7). 그룹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15). 혼합연령집단 실외놀이가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적실행기능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00). 영유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2). 산책을 통한 유아의 경험세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기(2014). 라온 유치원 만 5세 다솜반의 교사-유아 관계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승희(1997). 정서교육활동경험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지희, 봉진영, 조미영(2010).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종일반 교사들의 인식 및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14(2), 77-100.
- 백경순(2011). 교사-유아 상호작용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2(1), 223-240.
- 서미옥(2006). 대상협력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과제수행력. **아동학회지**, 24(3), 15-25.
- 서연실(2013). 혼합연령(복식)학급 유아화장실의 숨겨진 이야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옥경(2011).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도 실태 및 원장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충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경(2008). 어린이집 혼합연령 학급의 자유선택활동에 나타난 유아-유아,

-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화, 최효정(2015).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교사의 인식. **어린  
미디어연구**, 14(3), 211-229.
- 성영화, 최효정, 김근희(2015).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원장의 운  
영관리, 협력관계 및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10(4), 33-52.
- 성은현, 조경자(1999). 놀이와 아동발달. 발달지원학회. 제 1차 workshop.  
pp. 1-20.
- 성인수(1997). 공간건축과 공간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손승희(2001). 만 5세 유아들의 편식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연구. 아주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옥(2001). 만5세유아들의 편식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예선(2002). 유아의 공간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일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송은영(2008). 실외 협동 게임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상호작용  
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주(2005).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동, 환경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9(2), 151-167.
- 신세니, 안지성, 이효원, 조희숙(2008). 유아들의 목소리에 나타난 바깥놀이  
터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261-292.
- 신은수, 권미경, 지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  
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연구**, 17(4), 183-209.
- 심윤영(2004). 유아교육기관의 통학버스 안전실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선희(2013). 교사-유아 관계의 질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의 기질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 9(1), 281-299.

안수연(2000).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나타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채선(2000).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이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현경(2012). 혼합연령 중일반 유아들의 실외모래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재희(2013). 유아들이 만드는 공간의 의미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시내(2007). 유아교육기관 일과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화장실 공간의 의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주(2000). 두이 예술철학을 통해 본 교육적 경험의 의미. **교육과정 평가연구**, 3(1), 47-62.

유준호(2005). 혼합연령 중일반유아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만 4, 5세 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혜령(2005). 아동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역사와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8(1), 57-90.

윤선화(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태. **한국위기관리논집**, 9(2), 73-94.

윤주연(2013).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유아의 성별 및 보육기간에 따른 유아의 상호작용행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숙(2000). 유아교육과정. 서울:교문사

- 이민희(2008). 보육기관에서의 집단모래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재(2015). 어린이 교통사고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 법무·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이순금(2004). 어린이 공간의 개인적 의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경(2002). 유아와 상대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2010). 학급도우미 역할 부여가 위축행동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08).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정(2012) 유아의 혼합연령집단에서 나타나는 놀이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운옥(2006). 유아학급에서 교사와 유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비고스키 이론을 중심으로: 유아학급에서 교사와 유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0(3), 125-154.
- 이율이, 이완정(2004). 아동보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현황과 문제점. **아동과 권리**, 8(3), 481-500.
- 이은정(2008). 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인식 및 실천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상호작용. 원광대학교 대학원 학사학위청구논문.
- 이은화, 정 진, 박현주, (2000). 문화와 놀이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1), 43-59.
- 이중승(2009).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이지희, 김혜연(2012). 유아기 긍정적·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8(6), 301-322.
- 이진숙(2004).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보육시설 적응 간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127-235.
- 이차숙(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학지사
- 이하나(2012). 영아의 또래상호작용과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진(1997). 교실안에서 끌어들이는 화장실과 교사실-서울 불암초등학교에서 만나는 교육공간의 새로운 개념. **초등우리교육**, 20~23.
- 이효원, 조희숙(2016). 유아들이 경험하는 바깥놀이터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373-372.
- 임부연, 양혜련, 송진영(2012). 유아가 경험하는 교실 공간의 의미. **열린유아교육 연구**, 17(4), 249-272.
- 임승빈(1986). 환경심리 형태론. 서울:보성문화사
- 임우영, 안선희(2011). 유아교사-부모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연구**. 18(4), 323-350.
- 임현주, 최선녀(2015). 만 3세 유아의 기질 및 언어발달 과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정책연구**, 9(1), 51-73.
- 장영희(1987).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어머니 및 또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진(2015). 유치원 만 5세 유아간 사적대화에 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선옥(1989). 유치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 준(2008). 자기 결정 중심의 관계형성 활동이 통합학급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계숙, 황영미(2000).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일반유아와 고립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303-324.
- 정대현, 지성애(2006). 유아의 또래 상호 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 간의 관계. **유아교육논집**, 26(3), 201-221.
- 정은경(1999). 유치원 유아들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2011). 가정에서 영아의 문해 환경과 언어발달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영(2002). 유아사회교육. 창지사.
- 조선숙(2010). 정서교육에 대한 Peters와 Dunlop의 관점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진, 구은미(2010). 유아교육기관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교사와 경찰공무원의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19(4), 245-259.
- 차영숙(2001). 공유활동을 통한 또래 간 상호작용의 경험이 유아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연구**, 10(2), 108-124.
- 최미숙(2012). 실외 모래놀이 영역의 놀잇감 복합성 수준 및 놀이 시기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생태유아교육연구**, 11(2), 87-109.
- 최소영, 신혜영(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11(2), 311-329.
- 최선희, 황혜정(2011).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과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

- 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18.
- 하승민(1996). 유치원 단일연령 교실과 혼합연령 교실에서의 놀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한국영유아보육학**, 6, 83-110.
- 하은빈(2012). 말 늦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아동간의 의사소통 특성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재연(1999). 또래아동 주도의 사회적 시작행동 중재"가 통합된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은(2006).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유아 놀이학습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숙(1985). 유아교육기관의 놀이공간 구성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2010). 7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사회적기술과 사회적 놀이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9(3), 19-38.
- 한애숙(2003).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연구: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희(2016). 상황에 따른 유아의 정서 어휘 표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진주(2015). 유아들의 또래문화에 대한 질적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진주, 윤재희(2011). 유아 바깥놀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복합놀이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155-182.
- 허수연(2008). 사회적기술 습득을 위한 활동-중심 삽입 교수가 장애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선(2002). 소집단 미술활동이 고립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숙, 유혜령(2001). 아동기의 비밀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4(1), 169-198.
- 홍지영(2009). 만 4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 조절력과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영(2010). 유아의 성별과 인기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놀이행동.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주(2009). 혼합연령유아들의 사회극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ll, E. T.(2001). 보이지 않는 차원. 김광문, 박종평(공역). 서울:세진사.

## ABSTRACT

### Exploration of Children' s Experiences on the School Bu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Lee, So-Yeoub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meaning of the school bus through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hildren in the school bu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by taking the school bus space as a natural space for children and their life experienc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were set.

1. What kind of experiences do children have in the school bus?

The subjects were children at the age between 3 and 5 who use a school bus of A daycare center in D city. To collect materials for the study, a total of 72 participation observations on the interactions of

children on the school bus were administered. Formal interviews and informal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with teachers and children. Thirty-one (31) interviews were made with teachers and 96 interviews with children. Documents referred to include school bus table, school bus traveling log, children's development checklist, children's individual records and observation records. Participation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transcribed contents were repeatedly read, classified and categor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ldren experienced meeting and separation at the school bus. Children experienced parting with their family when they got on the bus. They used the bus as a space of emotional stability to relieve negative emotions. Children met with friends or classmates who got on and off the bus. They promised to sit on the bus together or to reserve a seat for their friends. The children experienced the excitement to meet their family members on the bus and used the bus as a space for planning and making a promise for another meeting. Plans and promises of children on the bus often led to the execution after getting off the bus.

Second, children mad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eers in the school bus. In the school bus children made a relationship to exchange information, knowledge and emotions. Younger ones asked a situation or a word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to older ones and

older ones gave good answers. Some children made secret actions such as exchanging things or snacks at the back of the bus or at the seats where teacher' s sight could not reach.

Third, the school bus was a space where children found their new selves. Children showed different aspects in the school bus. Some children who followed regulations in the classroom did not listen to the teacher on the bus, while some children who were naughty in the classroom showed considerations for younger children and helped them. Additionally, children transformed classroom activities into new activities by reproducing, expanding and repeating them.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bus of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was not only means of transportation but also a space of displacement, expression and relationship reestabl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It suggests that school bus is a valuable space where children have various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consider the school bus as another space of kindergarten, to pay attention to children on the bus, and to make the school bus space a meaningful space.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예비 조사서>

연구주제: 유아교육기관 통학차량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사회적상호작용

연구자: 이 소엽(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지도교수:전홍주

연락처: 010-4494-

학부모님께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 유아교육기관 통학차량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상호작용을 참여관찰 해봄으로써 문화적 공간적 의미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학버스 내부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이동수단이 아닌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고 유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참여기간은 2016년 5월 -일부터 9월 -일까지 이며, 연구기간 중 연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촬영된 자료는 논문 작성 후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되며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것과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자녀를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 4. 연구자 이 소 엽 드림

-----<절취선>-----

상기 본인은 위의 글과 연구자의 설명을 이해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 4 연구 참여유아 학부모

성명:

서명: